

주안에서 한길 가는 동역자분들께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의 반을 앞두고 있군요! 한국도 캄보디아도 코로나 방역 체계들이 자유로와지면서 출입국 문이 다시 열리고 있고, 주일 예배도 제한 없이 드릴 수 있게 되어 새롭게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 듭니다. 오랜 시간 방역과 몇 차례의 확산, 격리 등 여러차례의 백신접종을 받으면서 통제되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 지나왔는데, 이시간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주시는 교회와 소그룹모임, 동역자분들,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요즘 캄보디아는 우기철을 맞아 거의 매일 내리는 소낙비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처럼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 앞에 있는 앞 집의 양철 지붕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정말 장관입니다. 폭우가 순식간에 멈추고 늦은 오후 썸에는 서향인 제 방에서는 종종 붉은 노을이 오색찬연한 하늘을 감상하기에 딱 좋습니다. 한국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지요! 이곳은 다행히도 우기가 지나고 7월쯤이면 한국과는 다르게 조금은 시원한 날씨가 많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이곳은 지난 2월 4차 백신접종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5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방역제한이 없어져서 인지 예전과는 다르게 접종에 대한 인지는 희미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한 달간 정부부처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학교는 교직원 모두는 4차 접종을 마쳤고, 학생들은 약 60%의 접종을 완료(4차)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주일 예배》

다시 예배가 회복된 일상으로!

저희와 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끄랑돈데이 교회도 지난달부터 어린이 예배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아직 예전의 참여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는 따로 모이지 못해서 이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기 위해 차량봉사와 그룹별(동네) 방문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부흥이 되어 각 그룹 예배와 기도, 전도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놈펜기술학교(PPTS) 는 현재 졸업을 두 달반 정도 남겨두고 막바지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캄보디아 설날을 겸해서 민속전통놀이와 게임, 간식을 나누면서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여간 대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조용했던 학교가 각 기 모임이 활성화되고 정기적으로 드렸었던 예배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이전에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교사들의 경건모임이 더 깊어지고 학생들과의 예배도 활성화되어 새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외부적인 환경으로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식적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이 사회에 섬김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학교 학기종강 》



《 기술학교 종강, 설날 맞이 전통놀이 》

저희 중국어반 학생들은 1학기 7명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2학기가 시작되고 현재는 5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학생들은 매일 교대로 바뀌는 근무시간 때문에 주 중에 두,세번 정도로 오고 있는데 일과 병행하는 학업에 지치지 않고 졸업 때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이 두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학기 마지막에 학생들 신앙 상담을 통해서 혼자서도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학교 근처 현지 교회 예배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식도 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굳건해져서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

2014년 캄보디아에 새로운 사역의 등지를 트고 올해 9월이면 만 8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협력사역을 하고 싶은 열망을 품었는데, 주께서 예비해두셨던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인도를 받으며 오늘까지 순조롭게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작년에 캄보디아의 사역을 서서히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와는 변화된 경제적 환경과 학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마무리 되면서 제가 이곳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시점이란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말 한 해 수업을 마치게 되면 9월부터 안식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8년 첫 번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후 프놈펜기술학교에서 교육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야 약속된 것을 누린다”! 신실하신 주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순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 마음과 시선이 주께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긴 전력이 약해서 오늘도 여러번 전기가 들어왔다 끊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기라고 하지만 강우량이 적는데, 한창의 더위가 지나가고 있는 때여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아침 말씀 묵상 후 매일 읽으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적용해가는 진리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소소합니다. 이런걸 소확행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가는 시간들로 가득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022년 6월 10일 박화빈(은미) 드림.

